

9면에서 계속

50대, 긴장을 늦추지 마라

| 투자목표 | 준비 기간 | 투자 대상 | 저축 |
|------|--------------------|--|--------------------------|
| 위험보장 | 지속적으로 준비 | 보장성보험(종신/건강보험) | 완납 |
| 목돈마련 | 노후기간 비상준비금 | 비과세상품 | 소득의 5% 이상 |
| 노후자금 | 은퇴 후 최소 20년~30년 예상 | 연금보험 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배당형 투자상품/펀드(거치식) | 소득의 70% 이상 및 축적된 자산관리 집중 |

50대, 긴장을 늦추지 마라

50대가 되면 더 이상 재무설계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명은 과학 의학기술의 발달로 늘고 있다. 은퇴 후 삶이 30~40년 이상 가능한 것이 요즘 현실이다. 은퇴 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노후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

50대 이후는 수입을 잘 관리하고 기존의 자산은 잘 관리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때 무리한 투자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적 손해는 물론 심리적인 충격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고수익상

품을 찾되 안정성을 우선 따져보고 철저하게 분산투자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비과세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보험을 해약하는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때는 대부분의 보험금액을 완납한 상태로 노후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은퇴 이후, 장기 분산 투자해라

은퇴 이후에는 본인의 투자전략이나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보수적으로 가져가면 안된다. 지금처럼 장기간에 걸친 은퇴기간 및 저금리 시대에는 이미 은퇴한 사람들도 재무설계를 통해 본인의 노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건강상 이유로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머니마켓펀드(M

MF),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목돈을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퇴직자금이나 그 외 주택저분금액, 적금 등이 생긴 경우에는 일부분은 고정금리상품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남은 노후기간을 산정해 실적배당형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은퇴자라고 해서 수익증권을 택할 때 항상 채권형이나 혼합형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제 막 은퇴했다면 이후에도 20~30년이란 투자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배당형 펀드나 가치주 펀드를 고려해 보는 게 좋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는 시대에 60세에 은퇴를 해도 20년 또는 30년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자산관리사를 지금부터 알아보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길이라 생각한다.

도움말=미래에셋생명 임대현(약사)

“나이 90살 먹도록 남은 건 빗덩이 건물 하나”

최고령 현직약사가 말하는 나의 노후



“태평양전쟁 지나고 동란 일어나고. 험겨운 시절 다 겪어오면서 이제 남은 건 이 허름한 건물 하나가 다지 뭐. 이것도 내돈으로 올린 거 아니야. 상업은행이 지어준다고 빚 끌어와 지었지 뭐. 세금 이자 내느라고 젊은 청춘 다 보내고 이거 하나 붙잡고 있으니...”

현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장현(90. 성모약국) 약사가 노후 생활이 어떨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원래 교사였다. 그러다가 자녀가 5명으로 늘면서 교사 생활을 접고 젊은 시절 다시 약대를 졸업해 지금의 영등포 자리에 약국 하나를 냈다. 하루에 두번씩 전차를 타고 종로5가에 가서 약품을 구매하고 약국을 겨우 겨우 운영했다.

국민 보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약사직능의 무게에 눌러 반세기 약국을 지켰

지만 정작 약사 본인의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할 수 없다는 게 노 약사의 지적이다.

현재 그의 노후 자산은 영등포에 있는 5층 건물이 유일하다. 시가로 치면 수십억원은 나가지만 자녀 5명 건사하느라고 빚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의 말처럼 ‘남는 것 없이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90살이 다 되어버린 것’이다.

노 약사는 약사의 생활을 ‘외화내빈’이라고 말했다.

밖에 비쳐지는 모습은 화려하지만 안으로는 썩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젊은 약사들에게 미리 미리 노후를 준비하라고 권했다.

자신의 세대는 그나마 건물 하나라도 챙겼지만 앞으로 후배 약사들은 그럴 기회마저 적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내가 살아온 인생 되돌아 보니까 연금, 보험 미리 들어둘 걸하는 후회를 많이 해. 그렇다고 욕심 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도 약사가 늙어서 구질구질하면 국민들 보기에도 흉하잖아요.”

노 약사는 자신의 건물 얘기든, 살아



온 얘기를 기사로 옮겨도 좋다고 했다. 젊은 후배 약사들에게 선배가 간 길을 거울 삼아 더욱 분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는 회 차원에서도 약사연금조합 등 회원들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웅종기자 bulldong@kpanews.co.kr

www.kpanews.co.kr

KPANews·약사공론 지령40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회 장 장우성

수석부회장 전 종 대

부회장 정 락 소

부회장 전 영 구

총 무 김 지 현

부회장 원 도 희

부회장 이 한 구

여동문회장 두 정 효

총 무 서 미 교

부회장 이 윤 우

부회장 정 세 훈

총 무 전 웅 철

외 동문일동